

비즈니스 창업동아리 ② 플라워 아트

예비창업가 도전정신과 진취적 자세 함양

“플라워-아트로 실물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포천종합고등학교 인터넷정보과 동아리 플라워 아트 동아리반에는 여러 가지 예쁜 모양의 꽃들이 동아리실을 장식하고 있다.

동아리 담당 현덕자 교사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동아리회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예비창업가가 되어 도전정신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고속터미널 조화 상가 일대와 동대문 시장, 히브아일랜드 등의 견학학습으로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과 접해보고 창업아이템을 구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조별 또는 개인별 소품 제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신장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동아리 회원간의 친목과 결속력을 도모하게 된다.

교내전시회와 비즈니스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봄으로써 전시와 판매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소품제작과 전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발생한 지출과 수익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경영이론 교과서에서 배운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체험하기 위해 수익금 중의 일부를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줄 알게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창업전문가를 초빙, 또는 방문하여 창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창업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라워 아트 박상미(3학년) 대표는 “동아리 대표로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공부라 된다”며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포천종합고등학교 비즈니스창업동아리 플라워 아트 동아리(대표 박상미)반 학생들이 플라워 아트에 대해 설명한 후 이광호 교장, 현덕자 담당교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덕자 담당교사는 “플라워 아트는 조화, 이끼, 각종 열매, 부쉬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코사지, 액자, 리스, 방향제 등의 생활소품과 장난감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창업센터 견학, 소품제작 기업연수, 소품생산을 위한 디자인개발 활동 등을

통해 창업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미래의 창업마인드를 키우고 학교 축제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 홍보감각을 익히는 등 다양한 경험을 키워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사 탐구

18

포천고등학교 기숙사운영부장 이상호



포천고등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 도약의 발판을 기숙사 운영으로 삼았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포천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이 바로 기숙사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포천고등학교 기숙사, 이듬해에 면암관이다. 이곳 면암관의 운영을 맡은 이상호(35·사진) 기숙사운영부장을 만났다.

이 교사는 지난 99년3월1일자로 포천고등학교에 첫 부임한 후 현재까지 포천고등학교를 지키는 든든한 교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3담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이 교사가 기숙사운영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기숙사운영을 통해 확고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직접도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포천고등학교를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명문학교로 인정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 교사는 “포천고등학교의 위기는 포천 공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하며 “우선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포천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 기숙사 운영프로그램

“지점도록 공부할수 있는 여건 조성한다”

보다는 포천고 자체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더 큼니다. 박탈감이 포기과 좌절로 가지 않고 자구책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포천고의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홀음도 1.2년 안에 소홀동이 되고 소홀동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포천 관내의 순수 인문계고등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없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포천고가 더 위상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포천 전체로 보서는 우수학생 누수현상은 볼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성공으로 “지금까지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무임승차(?)를 해왔지만 이제 당당하게 돈을 내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힘을 쓸 것 약속”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영평면 양문2리에서 태어난 이 교사는 영중초등학교, 영중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를 나와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포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리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물리를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인 수학을 학생들에게 별도로 교육하고 이 교사는 학생들의 실력향상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2001년부터 3년동안 인터넷 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 활용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 2003년도에는 수화동아리 ‘열손가락’을 창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공원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에 나서는데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처음 교사로 부임하여 1시간 수업을 위해 3~4시간 수업준비를 한 후 학생들을 만나 질 높은 수업에 나선 이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수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수업에서 학생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일상

생활지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역시 수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교사는 포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적 여건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착한 것이 사실이라며 착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3담임을 할 당시 일부교사가 수시지원을 적성검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적성검사 문제 빨리풀기 학습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그해 8명의 학생이 적성검사 대상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교홍보팀장을 맡아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는 이 교사는 “관내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을 포천고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숙사운영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갖추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교사는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입학하면 우수한 학생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만 우수한 학생을 입학하게 하여 더욱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포천고등학교 기숙사에는 자치회가 구성되었다. 이 자치회는 학생들 스스로 기숙사를 관리하고 스스로 공부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교사는 다만,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학력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교사는 “등굣길에서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열정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학생들에게 권위 있는 교사로서 오늘도 포천고등학교를 실력있는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교사의 모습에서 포천고의 밝은 미래를 읽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민장학금 13명에게 1천380만원 수여

재경포천시민회 포천여성회관에서 전달식 가져



재경포천시민회가 지난 4일 오후5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금 1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천38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가 지난 4일 오후5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경기도민회 (이사장 김대경) 장학금 1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천38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고조홍 국회의원, 변진수 포천교육장과 최종규 포천시민대책추진위원장 등 내빈과 장학생 및 학부모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장학금은 경기도민회가 마련한 장학금을 재경포천시민회가 대신 전

달한 것이다. 재경포천시민회는 포천출신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중에서 포천시가 추천하는 대학생 6명과 전문대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학생은 1인당 150만원, 전문대 학생은 1인당 1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8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은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은 포천의 미래를 짊어

지고 갈 학생들”이라며 “재경포천 시민회도 지난해 연말부터 장학금 100여만원을 목표로 기금모금에 나서고 있어 포천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조홍 국회의원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장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4대 권역과 중앙 등 5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천교육을 보다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경숙(강원대 3년) ▶홍성란(숙명여대 1년) ▶윤은정(서울여대 2년) ▶김양훈(한국외대 1년) ▶윤은혜(성신여대 4년) ▶이선미(한성대 4년) ▶나연미(신흥대 1년) ▶김은영(신흥대 1년) ▶박수경(포천종합고 3년) ▶유소라(관인고 2년) ▶이혜미(포천고 2년) ▶최강철(포천고 3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운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11. 그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it?
윗두유렁커바우릿?

*당신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What you do is right.
윗두두이스 파잇.

12.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Will this do you?
윌디스두유?

*그럼요. 뭘니다.
Sure, it does.
슈어, 잇디이스.

문의: 윤중성
(017-723-4977) coolyoon@nate.com

맛의 차별화를 선언한 **한식전문 전주식당**이 정성을 다한

새로운 메뉴를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구찜/탕(대 35,000 중 25,000)
꽃게찜/탕(대 55,000 중 35,000)
해물탕(대 40,000 중 30,000)
낙곱전골(대 30,000 중 20,000)
낙지전골(대 30,000 중 20,000)
제주갈치조림
(대 40,000 중 30,000 소 20,000)
가마솥정식백반 7,000
부대찌개 5,000
삼겹살 6,000

◆백반 가격인하 8,000 → 5,000

<특선메뉴>
 해물탕/꽃게찜·탕/제주갈치조림

찾아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8 / 전화 : 031-542-3912 / 대표 : 김 형 준